

문화로
읽는
사회

Emotion



글 김일균

현대인들은 사회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와 역할인 '소셜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다. 최근 메신저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소통의 창구로 떠오르면서 감정 표현을 돕는 '감정대리인'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Agent



〈나 혼자 산다〉, 〈전자적 참견시점〉, 〈미운우리새끼〉 등의 프로그램 패널들은 출연자들의 영상을 보며 화내고 웃고 안타까워한다.



쉽고 가볍게 감정을 표현해주는 대리인

감정대리인은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사람을 뜻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주로 대면 없이 문자로 소통을 하는 메신저나 SNS 서비스, 단방향으로 진행되는 TV 프로그램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감정대리인으로 메시지에 감정을 보태는 ‘이모티콘’이 있다. 기쁨, 슬픔 등의 감정을 특수부호 조합으로 표현한 것이다. 쌍점과 괄호를 합친 ‘:)’(미소)나 영문자 T를 두 번 사용한 ‘TT’(눈물) 같은 표현이 대표적이며 이메일과 SNS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널리 쓰이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로 들어서면서 이모티콘도 변화하는 중이다. ‘이모지’와 ‘클립아트’ 등 감정표현 이미지가 메신저에 탑재돼 소통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클립아트는 캐릭터가 직접 상황을 표현해 이미지만으로도 대화가 가능해졌다.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움직이는 클립아트는 이모티콘의 감정



전달을 극대화했다.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감정이미지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클립아트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사용자의 정체성을 반영한 캐릭터도 속속 등장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사 캐릭터부터 만화, 동물 캐릭터까지 정말 다양하다. 이는 캐릭터에 이입해 감정을 표현하려는 사용자의 욕구를 반영했다. 캐릭터는 이제 감정대리인은 물론 사용자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자기표현의 역할까지 맡게 됐다.

말하고 놀고 웃고, 모든 걸 대신해

메신저 뿐 아니라 SNS에서도 감정대리인에게 정체성을 투사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최근 여행을 다니면서 본인의 사진을 남기는 대신 가지고 다니기 쉬운 봉제인형의 사진을 남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남들에게 자신을 내보이면서 소통하는 SNS의 특성에 맞춰 사람들에게 근황을 알리면서 자신의 모습은 카메라 뒤로 감추는 행위다. 전면에 배치된 인형은 자연스럽게 감정대리인의 역할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관찰형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감정대리인을 찾아볼 수 있다. 〈나 혼자 산다〉, 〈전지적 참견시점〉, 〈미운우리새끼〉 등의 프로그램 패널들은 출연자들의 영상을 보며 화내고 웃고 안타까워한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이들에게 감정을 이입해 본인의 감정을 소비한다. 이들 프로그램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비슷한 포맷이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다. 감정대리인이 텔레비전을 통해 문화적인 코드로 떠오른 것이다.

감정대리인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도 생겨나고 있다.

클립아트나 이모티콘 등을 인형이나 팬시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감정대리인을 표방한 맞춤형 MD '감정 큐레이션'도 생겨나고 있다. 소비자의 기분과 상황에 맞춰 음악, 음식, 책 등을 추천해주는 '감정 큐레이션'은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기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감정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IPTV를 연동한 인공지능 개인 비서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감정대리인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해소와 공감, 감정 역할 재확인 필요

감정은 일상 속에서 표현하기 힘들고 방향도 잃기 쉽다. 그래서 감정대리인을 통한 소비가 편리할 수 있다. 하지만 감정표현이 힘들다고 해서 대리인에게 모두 맡겨버리면 자칫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거나 잃어버리게 된다. 감정대리인을 통해 감정을 표현한다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모티콘으로 표현한 감정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감정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앙금처럼 남아 인간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충동조절장애를 겪는 국내 환자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고 통제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혼자 감정을 해소하는 일이 버릇이 되면 타인의 감정에도 둔감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을 표현하는 편이 좋다.

하지만 사람을 향해 감정을 해소한 후에는 반드시 공감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감정 표현이 커뮤니케이션의 일부라는 것을 명심해야 솔직해질 수 있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

